

# 교육실습에 대한 초등예비교사들의 환류분석: T교육대학을 중심으로

김영주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 An Analysis of Prospective Teachers' Feedback on Field Experiences: Focusing on the Case of T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Youngjoo Kim

Department of Education,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 약 본 논문은 교육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육실습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참관실습, 학습지도실습, 실무실습, 수업실습과 관련하여 만족도, 실습시기와 기간의 적절성, 실습을 통해 얻어지는 교육적 이점,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개선점 등의 실태를 예비교사들의 환류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지방에 소재하는 한 교육대학에서 위 다섯 가지 형태의 교육실습을 모두 이행한 4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25개의 5point Likert scale 문항과 15개의 개방형문항 등 총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총 353명에게 배부되었고, 이중 92.35%인 326명이 응답하였다. 자료의 분석결과 만족도, 시기와 기간의 적절성, 실습의 이점과 개선점 등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반응은 각 실습형태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실습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교육실습, 교사교육, 교사교육과정, 예비교사, 교육대학교

**Abstract** The present study analyzed feedback from prospective teachers on field experiences in terms of their satisfaction and perceptions on the appropriateness of length and timing, benefits, and problem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administered to seniors at 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who completed all of the field experiences the university offered. The survey questionnaire consisted of 25 5point Likert scale questions and 15 open-ended questions. A total of 353 surve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326 were returned. Analyses of the data revealed that satisfaction level on field experiences and the appropriateness of length and timing, benefits and problems the participating prospective teachers perceived by the respondents differed according to the types of field experienc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discusses implications and provide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Key Words** : Field experience, teacher education, teacher education curriculum, pre-service teachers,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1. 서론

교육실습은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실습학교로 지정된 곳을 방문하여 그 학교에 근무하는 담당지도교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수업, 생활지도, 학급경영, 기타 실무에 대

한 관찰과 참여를 통해 교사로서 지녀야 할 다양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한다[1]. 교사교육의 한 핵심과정으로서 교육실습은 대학에서 배운 교육이론을 실천적 지식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Corresponding Author : Youngjoo Kim (ykim@gnue.ac.kr)

Received December 13, 2017

Accepted February 20, 2018

Revised December 20, 2017

Published February 28, 2018

교사들이 교육을 실천하는 상황은 아주 다양하고 역동적이다. 같은 학습내용이라도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심지어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그 학생들의 마음이 그 순간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교사의 실천 상황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된다. 때문에 학생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독특한 상황에 맞는 접근과 전략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직면한 가르침의 상황을 읽어내고 그에 상응하는 교육적 실천을 이행하는 교사의 역량은 단순히 수많은 교육이론을 축적한다고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론과 실제의 변증법적 통합이 주는 실천적 지식의 형성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2]. 즉, 교사의 실천역량은 실제 실천과정에서 교육이론을 적용해보고, 그것이 빚어내는 결과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통해 이를 자신만의 신념과 가치관이 담긴 교육적 지식과 기술로 구성하고 또 재구성함으로써 길러지게 되는 것으로, 교육실습은 예비교사들이 이런 실천적 지식을 형성해볼 수 있는 가장 실질적 공간인 것이다[3,4].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은 참관실습, 실무실습, 수업실습 등을 포함한 각기 다른 형태의 교육실습을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이들을 그 시기와 기간을 달리하며 운영하고 있다[5]. 교사교육이 궁극적으로 미래의 실천적 교육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교육실습이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실습의 질을 확보하는 것은 성공적 교사준비교육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6]. 따라서 탄탄한 교육실습체계를 마련하고,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는 등 예비교사들에게 양질의 실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교사양성대학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 소재의 한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실습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환류를 각 실습의 형태별로 분석해 보았다. 실습을 직접 이행해 본 예비교사들이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제공한 환류를 분석해보는 것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실습의 실태와 개선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교육실습 관련 선행연구 고찰

2000년대 이후 수행된 교육실습과 관련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우리나라 교

육실습체계의 취약점을 비판하고 개선의 방향모색에 초점을 둔 연구이며, 다른 한 가지는 교육실습에서 예비교사들이 하게 되는 경험과 실습의 효과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먼저 교육실습체계의 개선점 모색에 초점을 두었던 연구는 주로 2000년대 초반에서 중후반까지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대체로 외국에서 실시되는 교육실습의 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실습이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교사양성대학의 교육실습 체계를 미국·일본과 비교해 본 김지자와 그의 동료들은 우리나라의 실습 경우 교육실습 기간을 확대하고 실습 유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7]. 마찬가지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실습을 분석한 박영만 등의 연구 역시 8-9주 정도 운영되는 우리나라 초등교사양성대학의 교육실습 기간이 외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다는 점을 지적하고, 1-2주 정도의 도서·벽지 학교 실습을 추가하는 것과 함께 전체 실습기간을 15주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 더 나아가 전체적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목표와 경험 내용에 따라 몇 가지 구분되는 단계별 형태의 실습으로 구성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8]. 여기에 더해 황윤환은 교육대학이 교육실습을 운영함에 있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과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9]. 이는 이론과 실제의 통합이라는 교육실습의 기본적인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특정 형태의 실습에 앞서 관련 교과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의 시기 또는 대학 교육과정의 편성을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교육실습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는 대체로 실습이 제공하는 경험과 효과를 알아보는 데 집중되고 있다.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교육실습은 예비교사들에게 마치 미래의 근무지인 학교에 첫 출근하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맛보도록 해준다고 한다[10,11]. 실습을 나가면서 예비교사들은 교생선생님이라는 교사와 유사한 위치에서 학생들과 만나게 되는 설렘임을 경험하게 되며,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학생들을 통해 마치 정말 교사가 된 것과 같은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동시에 온전히 교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전히 대학생도 아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교생으로서의 위치는 예비교사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기도 한다. 하지만 실습이 진행되면서 교직과 관련하여 배우는 사람

이면서 동시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생선생님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개념화하며 점차 적응해가게 되는 것이다 [12]. 이러한 설렘, 뿌듯함, 혼란스러움, 짐작하여 파악하기 등의 마치 첫 출근을 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넘어, 학교에 머물며 교사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실제 수업과 학생지도에 참여해보며 예비교사들은 교사란 누구며 하는 일이 무엇이고, 이들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등 교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하게 된다고 한다[13,14].

더 나아가 실습을 통해 보고, 듣고, 논의하고, 해보는 것들은 예비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동기를 비롯하여 그들의 교육적 신념과 지식, 역량 및 자아효능감 등 미래 교사로서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많은 예비교사들이 실습을 통해 교직에 대한 동기의식을 강화하고, 수업전문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며, 효과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 자신이 더 보완해야 하는 자질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한다[15-17]. 또 수업지도안을 작성하고, 실제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호흡해보면서 수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업의 과정을 이끌어 가는 방법을 익히며, 또 이런 교사로서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효능감을 갖게 되기도 한다[18,19].

하지만 모든 예비교사들이 교육실습을 통해 위와 같은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일부 연구들에 의하면, 실습 경험이 예비교사의 성장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거나 도리어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초등교육실습을 수학교과의 관점에서 살펴 본 한 연구에 의하면 예비교사들이 실습을 통해 긍정적이지 못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더불어 실습 후 예비교사들의 수학교과 효능감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 [20]. 또 다른 한 연구는 실습을 통한 예비교사들의 교사 효능감이 실습지도교사의 지도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지도교사가 역할모델이 되어 주고, 실습생의 체험과 반성을 능동적으로 이끌어주었던 경우 예비교사들의 수업과 학생지도 등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높았던 반면, 지도교사와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임되었던 예비교사들의 실습 후 효능감은 낮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21]. 이러한 결과들은 교육실습의 경험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예비교사들의 성장에 나타나는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비단 여기에서 논의된 교사로서의 효능감 뿐 아니

라 학습자와 교수법을 비롯한 여러 교육적 요소에 대한 신념형성의 차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22].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과 교육실습프로그램

이 연구는 지방에 소재하는 T교육대학교에서 이 대학의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4학년 3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이 이행한 T교육대학교의 교육실습프로그램은 참관실습, 농어촌/도서벽지학교 참관실습, 학습지도실습, 실무실습, 수업실습의 다섯 가지 형태였다.

Table 1. Field Experiences

Type	Timing	Length
Classroom Observation	Freshman year, 2 <sup>nd</sup> semester	1week
Classroom Observation in Rural/island areas Schools	Sophomore year, 1 <sup>st</sup> semester	1week
Individual Instruction	Junior year, 1 <sup>st</sup> or 2 <sup>nd</sup> semester	120 hours
Administrative Practice	Junior year, 2 <sup>nd</sup> semester	1week
Teaching Practicum	Senior year, 1 <sup>st</sup> semester	5week

참관실습은 학교현장에 대한 도입의 성격이 강한 실습으로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수업과 생활지도를 비롯한 학교교육의 전반에 관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농어촌/도서벽지학교 참관실습은 농어촌/도서벽지학교가 가진 특수한 교육여건과 문화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습이다. 학습지도실습은 초등 교실에서 교사의 수업을 보조하여 학습부적응이나 학습부진아를 지도해 보도록 하는 실습이다, 실무실습은 학교 행정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며, 수업실습은 수업지도안을 작성하여 실제 수업을 시행하고 반성해보므로써 예비교사들이 수업전문성을 기르도록 하는 실습이다. 이 다섯 가지 형태의 교육실습 중 학습지도실습은 일주일에 이들의 오전 4시간을 초등학교에 머무르며 아동들의 학습활동을 조력하도록 하는 반일제 형식으로 운영되었으며, 나머지 실습은 실습기간 동안 실습협력학교에 온종일 머물도록 하는 전일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들 실습의 운영시기와 기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앞의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 3.2 자료수집

이 연구 자료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문헌연구가 제시하는 교육 실습 운영의 주요 고려 사항인 운영체계의 적절성과 실습의 이점, 그리고 개선점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실습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23]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25문항은 5-point Likert scale을 이용한 방식(즉, 5=매우 그렇다, 4=그렇다, 3=보통이다, 2=그렇지 않다, 1=전혀 그렇지 않다)으로 작성되었으며, 문항의 진술은 긍정적 형태를 사용하였다. 나머지 15개의 문항은 연구 참여자들이 이행했던 실습의 이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는 개방형(open-ended) 질문으로 구성하였다(부록 1). 설문지의 배부와 회수는 2017년 5월에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자 353명 중 총 326명이 응답하여 92.3%의 회수율을 보였다(응답자: 남 119명, 여 205명, 성별 미표기 2명).

### 3.3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5-point Likert scale을 이용한 문항의 경우 SPSS 21을 사용하여 4=“그렇다”를 검정 값으로 하여 단일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다. 검정 값 “3=보통이다”를 사용하여 초기 분석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기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사용했던 검정값(3=보통이다)보다 한 단계 높은 수치인 4(그렇다)를 검정 값으로 이용하였다. 개방형 문항의 경우 각 응답에 대한 코딩을 하고, 이를 통해 생성된 코드들에 대한 빈도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코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방형 문항에서 나온 총 응답의 30퍼센트에 대해 동료연구자의 도움을 받아 코더 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코딩 일치성은 96퍼센트였으며, 불일치를 보였던 4퍼센트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일치성을 확보한 후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코딩을 실시하였다.

## 4. 결과

### 4.1 실습의 만족도

Table 2.에 제시되었듯이, 실습의 만족도 분석 결과 참관실습( $M = 3.95$ ,  $SD = .892$ )은 “그렇다”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수업실습( $M = 4.26$ ,  $SD = .849$ )의 경우

에는 평균값이 “그렇다”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그 만족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세 실습인 농어촌/도서벽지실습, 학습지도실습, 실무실습의 경우는 “그렇다”라는 반응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수치의 만족도를 보였다.

Table 2. Satisfaction on Field Experiences

	<i>M</i>	<i>SD</i>	<i>t</i>	<i>p</i>
Classroom Observation ( <i>n</i> = 322)	3.95	.892	-1.000	.318
Classroom Observation in Rural/island area School( <i>n</i> = 322)	3.79	.977	-3.937**	.000
Individual Instruction ( <i>n</i> = 322)	3.20	1.268	-11.298**	.000
Administrative Practice( <i>n</i> = 321)	3.31	1.167	-10.662**	.000
Teaching Practicum ( <i>n</i> = 326)	4.26	.849	5.479**	.000

### 4.2 실습시기의 적절성

Table 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비교사들은 참관실습( $M = 4.10$ ,  $SD = .809$ )의 경우 실습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그렇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평가를 내렸으며,  $t(320) = 2.276$ ,  $p = .024$ , 이로 미루어 볼 때 예비교사들은 이 실습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도서벽지실습( $M = 4.08$ ,  $SD = .798$ )의 경우는 참관실습만큼의 확신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t(320) = 1.818$ ,  $p = .070$ . 반면, 학습지도실습, 실무실습, 수업실습의 시기적 적절성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Table 3. Appropriate of Timing

	<i>M</i>	<i>SD</i>	<i>t</i>	<i>p</i>
Classroom Observation ( <i>n</i> = 321)	4.10	.809	2.276*	.024
Classroom Observation in Rural/island area school ( <i>n</i> = 321)	4.08	.798	1.818	.070
Individual Instruction ( <i>n</i> = 321)	3.43	1.241	-8.186**	.000
Administrative Practice( <i>n</i> = 321)	3.67	1.080	-5.480**	.000
Teaching Practicum ( <i>n</i> = 326)	3.73	1.208	-4.035**	.000

말해, 세 가지 실습의 경우 그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예비교사들은 “그렇다”는 긍정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3 실습기간의 적절성

Table 4는 실습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참관실습( $M = 4.05, SD = .798, t(318) = 1.053, p = .293$ )과 농어촌/도서벽지실습( $M = 3.93, SD = .893, t(319) = -1.377, p = .170$ ), 수업실습( $M = 4.06, SD = .988, t(323) = 1.013, p = .312$ )의 기간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응답은 “그렇다”라는 것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위 세 가지 실습의 기간이 전반적으로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에, 학습지도실습( $M = 3.27, SD = 1.298, t(319) = -10.036, p = .000$ )과 실무실습( $M = 3.57, SD = 1.098, t(319) = -7.076, p = .000$ )은 “그렇다”라는 기준 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교사들은 이 두 실습이 이루어진 기간의 적절성에 대해 긍정적인 확신을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4. Appropriateness of Length

	<i>M</i>	<i>SD</i>	<i>t</i>	<i>p</i>
Classroom Observation ( <i>n</i> = 319)	4.05	.798	1.053	.293
Classroom Observation in Rural/isalnd area school( <i>n</i> = 320)	3.93	.893	-1.377	.170
Individual Instruction ( <i>n</i> = 320)	3.27	1.298	-10.036**	.000
Administrative Practice( <i>n</i> = 320)	3.57	1.098	-7.076**	.000
Teaching Practicum ( <i>n</i> = 324)	4.06	.988	1.013	.312

### 4.4 실습 지도교사를 통한 배움의 기회

Table 5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실습지도 교사를 통한 배움의 기회는 수업실습의 경우 “그렇다”( $M = 4.53, SD = .747, t(325) = 12.756, p = .000$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지도교사들의 지도를 통한 배움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네 실습은 모두 “그렇다”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모든 실습에서  $t$  값이 마이너스이며  $p = .000$ ), 특히 학습지도실습의 경우 지도교사로부터 배우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 $M = 3.28, SD =$

1.276,  $t(320) = -10.059, p = .000$ ).

Table 5. Guidance of Supervising Teacher

	<i>M</i>	<i>SD</i>	<i>t</i>	<i>p</i>
Classroom Observation ( <i>n</i> = 320)	3.62	1.052	-6.428**	.000
Classroom Observation in Rural/island area school ( <i>n</i> = 321)	3.53	1.049	-7.984**	.000
Individual Instruction ( <i>n</i> = 321)	3.28	1.276	-10.059**	.000
Administrative Practice( <i>n</i> = 321)	3.40	1.193	-8.985**	.000
Teaching Practicum ( <i>n</i> = 326)	4.53	.747	12.756**	.000

### 4.5 실습을 통한 미래교사로서의 성장

미래교사로서 성장에 대한 실습의 기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예비교사들은 수업실습( $M = 4.50, SD = .720, t(322) = 12.449, p = .000$ )의 경우 기준치로 설정된 “그렇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응답하여 이 실습의 경험에 대해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였다. Table 6. 반면, 나머지 네 가지 실습에 대해 “그렇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평가(모두  $p = .000$ )를 함으로써 이들 실습이 미래교사로서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학습지도실습( $M = 3.44, SD = 1.216, t(318) = -8.239, p = .000$ )과 실무실습( $M = 3.34, SD = 1.144, t(318) = -10.230, p = .000$ )의 기여도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평가는 다른 실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Table 6. Improvement in Qualities as Future Teacher

	<i>M</i>	<i>SD</i>	<i>t</i>	<i>p</i>
Classroom Observation ( <i>n</i> = 319)	3.71	1.008	-5.055**	.000
Classroom Observation in Rural/isalnd area school( <i>n</i> = 319)	3.67	.985	-6.023**	.000
Individual Instruction ( <i>n</i> = 319)	3.44	1.216	-8.239**	.000
Administrative Practice( <i>n</i> = 319)	3.34	1.144	-10.230**	.000
Teaching Practicum ( <i>n</i> = 323)	4.50	.720	12.449**	.000

#### 4.6 실습의 이점

각 실습형태별로 이점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응답을 빈도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실습을 통해 얻은 이점을 서술하도록 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수업실습의 경우 전체 설문 참여자 326명 중 211명(64.7%)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실습은 131명에서 163명으로 50퍼센트 이하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Table 7에 제시된 빈도는 각 실습형태별로 제시된 응답만을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 각 빈도가 갖는 무게감은 실습형태별로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참관실습의 이점으로는 수업(39명, 빈도율 27%)과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 향상(28명, 19.9%), 교직에 대한 매력 확인(31명, 22%) 등이 있었다.

Table 7. Benefits

Classroom Observation (n= 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omoted an understanding of classroom teaching (n= 38) (27%)</li> <li>·Heightened motivation and confirmed aptitude as pre-service teachers (n= 31) (22%)</li> <li>·Facilitated an understanding of school systems and surrounding environments (n= 28) (19.9%)</li> <li>·Provided opportunities to learn how to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students (n= 14) (9.9%)</li> <li>·Promoted an understanding of students (n= 10) (7.1%)</li> </ul>
Classroom Observation in Rural/isl and area school (n= 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omoted an understanding of students' characteristics and school cultures in rural and island areas (n= 86) (65.6%)</li> <li>·Contributed to establishing a positive attitude towards schools in those areas (n= 15) (11.5%)</li> <li>·Provided opportunities to realize issues and problems faced by schools in those areas (n= 8) (6.1%)</li> <li>·Provided opportunities to think about teaching in small classes (n= 7) (5.3%)</li> </ul>
Individual Instruction (n= 1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omoted an understanding of the underachieved (n= 38) (23.3%)</li> <li>·Facilitated an understanding of school life and overall system (n= 31) (19%)</li> <li>·Facilitated an understanding of students (n= 25) (15.3%)</li> <li>·Provided an opportunity to learn how to teach the underachieved (n= 24) (14.7%)</li> <li>·Offered opportunities to observe classroom teaching (n= 10) (6.1%)</li> </ul>
Administrative Practice (n= 1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omoted an understanding of administrative affairs (n= 115) (83.3%)</li> </ul>
Teaching Practicum (n= 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omoted an understanding of actual classroom teaching (n= 170) (80.6%)</li> <li>·Contributed to establishing a positive attitude towards primary school teachers (n= 11) (5.2%)</li> </ul>

\*응답빈도율이 5% 이하인 것은 위 Table 7에 포함하지 않았음  
 \*응답빈도율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농어촌/도서벽지학교 실습과 관련해서는 이 지역 학교의 교육적 상황과 문화에 대한 이해(86명, 65.6%)라는 점과 소수이긴 했지만 이 지역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응답한 이들(15명, 11.5%)도 있었다. 학습지도실습의 이점으로는 학습부진아에 대한 이해와 지도능력의 함양과 더불어 학교의 실제 일상과 학생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실무실습과 수업실습의 경우 각각 학교 행정 업무에 대한 파악(115명, 83.3%)과 수업능력함양(170명, 80.6%)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 4.7 아쉬웠던 점

아래 Table 8은 예비교사들이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각각의 실습에 대해 느꼈던 아쉬운 점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 서술한 것을 빈도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8. Future Considerations

Classroom Observation(n=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hort length (n= 29) (47.5%)</li> <li>·Lack of necessary guidance (n= 27) (44.3%)</li> <li>·Ineffective lectures(n= 5) (8.2%)</li> </ul>
Classroom Observation in Rural/island area school (n=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convenience and high costs caused by transportation and accommodation (n= 54) (48.2%)</li> <li>·Some schools are too big to be designated as rural/island schools (n= 19) (17%)</li> <li>·Short length (n= 15) (13.4%)</li> <li>·Lack of varied learning experiences (n= 8) (7.1%)</li> </ul>
Individual Instruction (n= 1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convenience: long distance (n= 68) (39.3%)</li> <li>·Too much burden: carrying out the practicum and taking classes during the same period (n= 64) (37%)</li> <li>·Length: too long (n= 17) (9.8%)</li> <li>·Should be more systematic (n= 12) (6.9%)</li> </ul>
Administrative Practice (n= 1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ecture-based practicum: too many lectures (n= 93) (67.4%)</li> <li>·Doubts about the necessity of the practicum (n= 16) (11.6%)</li> <li>·Few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students (n= 15) (10.9%)</li> </ul>
Teaching Practice (n= 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appropriate timing given it is administered in the midst of preparing for the annual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 (n= 36) (33.3%)</li> <li>·Too much work during practicum (n= 19) (17.6%)</li> <li>·Few opportunities to observe other classes to which I was not assigned (n= 12) (11.1%)</li> <li>·Not enough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supervising teachers (n= 9) (8.3%)</li> <li>·Not enough teaching opportunities (n= 7) (6.5%)</li> <li>·Supervising teacher's inability to provide much needed guidance (n= 6) (5.6%)</li> <li>·Short length (n= 6) (5.6%)</li> </ul>

\*응답빈도율이 5% 이하인 것은 위 Table 8에 포함하지 않았음  
 \*응답빈도율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실습의 아쉬웠던 점에 대해 총 326명의 설문참여자 중

에서 173명(53.1%)이 응답한 학습지도실습을 제외하고는 모두 40퍼센트 이하의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참관실습에 대한 응답률은 18.7퍼센트(61명)로 저조하였는데, 때문에 이 실습의 경우 빈도분석결과 실습기간이 다소 짧았다는 의견이 47.5퍼센트의 높은 빈도율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 응답은 전체 326명의 설문 참여자를 기준으로 볼 때 29명이 제시한 사항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아쉬웠던 점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학습지도실습의 경우 실습학교까지의 거리가 멀었다는 점(68명, 빈도율 39.3%)과 실습기간동안 대학 강의를 병행하는 것(64명, 37%)이 주로 언급되었다. 실무실습의 문제점으로는 실무를 익히기 위한 실습이 강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93명, 67.4%)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으며, 심지어 일부 예비교사들은 이 실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16명, 11.6%)을 제시하기도 했다. 수업실습에 대해서는 임용준비에 몰두해야 하는 4학년 1학기라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는(36명, 33.3%) 문제제기가 가장 많았고, 실습기간 동안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너무 과도하게 많다는 의견이(12명, 11.1%) 그 뒤를 따랐다.

## 5. 요약 및 논의

이 연구는 교육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육실습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참관, 학습지도, 실무, 수업실습과 관련하여 만족도, 실습시기와 기간의 적절성, 실습을 통한 학습과 이점과 문제점 등 운영 실태에 대해 이를 이행한 예비교사들의 환류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수업실습이 가장 높았다. 예비교사들은 수업실습에 대해서는 확실히 만족스러웠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나머지 실습에 대해서는 그다지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습지도실습은 학교현장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실습이라는 점에서 교사교육자들을 중심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24] 실무실습과 더불어 가장 낮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는 점은 이 실습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실습시기와 관련하여 1학년 2학기과 2학년 1학기에 각각 이행하게 되는 일반학교 참관실습과 농어촌/동서벽지학교 참관실습에 대해서는 그 시기가 대체로 적절하다고 느끼는 반면, 3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에 하게 되는 학

습지도실습과 3학년 2학기의 실무실습, 그리고 4학년 1학기에 실시하는 수업실습 시기의 적절성은 비교적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예비교사들의 실습시기에 대한 이런 평가는 이들이 실습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내용 중 일부와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수업실습의 경우 예비교사들은 아쉬웠던 점 중의 하나로 수업실습을 이행하는 대학 4학년 1학기는 이들이 2학기에 치르게 되는 임용시험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큰 시기이며, 때문에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기한 바 있다. 또 학습지도실습의 경우, 아쉬웠던 점으로 상당한 수의 예비교사들이 일주일에 이를 동안 오후에 이루어지는 대학에서의 강의를 병행하며 오전에 초등학교에서 실습을 하게 되는 것이 체력적으로 시간적으로 벅찼다는 점을 꼽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학습지도실습시기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낮은 평가는 실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오후 대학 강의를 있는 날의 오전이라는 점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습기간과 관련하여 예비교사들은 각각 일주일간 지속된 일반학교 참관실습, 농어촌/도서벽지학교 참관실습, 그리고 5주간의 수업실습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적절하였다고 하였다. 반면, 120시간 동안 실시된 학습지도실습과 1주간의 실무실습 기간은 적당하다고 보지는 않았는데, 학습지도 실습의 경우 예비교사들은 15주의 기간이 너무 길었다며 이를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교육실습에서 지도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배움의 기회를 갖는다는 매우 중요하다. 예비교사가 실습 동안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미래교사로서 어느 정도의 성장을 이루어내느냐의 상당 부분이 바로 지도교사에 달려있기 때문이다[25]. 이렇게 중요한 지도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배움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수업실습은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실습은 그렇지 못하였다. 특히 취약했던 것이, 실무실습과 학습지도실습으로 나타났다. 실무실습의 경우 예비교사들은 아쉬웠던 점의 하나로 이 실습의 대부분이 집단강의로 채워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는 지도교사와의 교류를 통한 배움 기회의 부족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눈여겨 볼 점은 예비교사들이 학습지도실습을 이행하면서 지도교사로부터의 배움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반응한 부분이다. 학습지도실습은 한 초등학교실에 한명의 실습생을 배정하고 매회 4시간씩 담임교사와의 협력을 토대로 학습부진아를

포함한 학생들의 학습지도를 해보도록 하는 실습이다. 이런 일종의 1교실 2교사체처럼 지도교사와의 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인 이 실습에서 지도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배움의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것은 이 실습이 본래 의도된 활동으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라 하겠다.

실습을 통한 미래교사로서의 성장 여부에 대해 예비교사들은 수업실습에 대해 확실히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고 한 반면, 여타의 실습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유보하였다. 하지만 뒤에 이어진 각 실습을 통한 이점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이들의 반응을 볼 때, 그 여타의 실습이 가져다주는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비교사들은 수업에 대한 이해와 실천능력을 함양시켜주었다는 수업실습의 이점 외에도 일반 참관실습의 경우 초등학교 현장과 수업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었으며, 자신의 진로로서 교직에 대한 매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 농어촌/도서벽지학교 실습을 통해 농어촌/도서학교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학습지도 실습의 경우 부진아에 대한 이해와 지도방법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장기간에 걸쳐 초등학교 교실에 머무름으로써 학교 현장의 꾸미지 않은 현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실무실습은 학교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었다고 하였다.

각 실습이 가져다주는 이러한 이점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위의 실습들은 교직에 대한 동기화를 시작으로 학교의 문화, 학생과 교사업무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는 등 예비교사들의 교직으로의 사회화를 위한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각 실습별로 상당히 많은 내용의 아쉬운 점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교육대학교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실습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환류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교육대학교의 교육실습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실습의 시기로 현행 4학년 1학기가 아닌 다른 시기로의 이동 가능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수업실습은 대학에서 배운 교과교육지식과 교육학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수업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봄으로써 수업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그 의도가 있다. 따라서 통상 대부분의 교육대학교가 교직이론과 교과교육

에 대한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는 3학년 2학기나 4학년 1학기에 수업실습을 운영하고 있다[26]. 본 연구의 사례가 되었던 T교육대학의 경우 수업실습이 4학년 1학기에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많은 응답자들이 이 시기의 실습이 임용시험에 대한 준비로 인해 실습활동에 몰입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임용준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3학기 2학기에 수업실습을 실시하는 다른 교육대학의 실습시기에 대한 타당성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습시기 이동 여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실습기간과 관련하여 한 학기 전체 기간인 15주 동안 120시간 이행하게 되는 학습지도실습이 너무 길다는 지적을 고려할 때, 실습이행 주수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습지도실습과 관련하여 실습학교들 사이에 운영방식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예비교사들은 이 실습이 진행되는 방식이 학교에 따라, 지도하는 교사에 따라지는 등 그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실습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실습 사전 지도 세미나에 지도교사도 함께 참석하도록 하거나 실습 학교용 매뉴얼을 개발·배부하는 등 지도교사들 사이에 학습지도실습에 대한 공감된 이해를 형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오전 실습과 오후 대학 강의를 병행하는 것에서 오는 고충을 감안할 때, 일주일에 이틀 오전에 하는 실습을 일주일에 하루 온종일 실습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일이다.

넷째, 참관실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에 대한 참관 자체만을 하게 하기보다는, 참관 전 참관하게 될 수업에 대한 개관적 안내와 더불어 참관의 관점에 대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참관 후에는 참관한 수업에 대한 현장 교사들과의 협의 기회가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농어촌/도서벽지학교 실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습학교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농어촌/도서벽지학교의 학생, 교육활동, 교직원문화 등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학교만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 실습의 효과가 단순히 농어촌/도서벽지학교의 이해에 그치지기보다 이 학교들에서의 교육실천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과 논의를 촉진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수립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실무실습은 굳이 실습을 나가지 않아도 대학 강의실에서 가능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듣고 쉽게 잊어버리는 이론적 강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학교행정업무의 실재를 기반으로 한 논의와 관련 문서작성 경험을 통해 실질적 수행능력이 길러지도록 한다.

## 6. 결론

교육대학의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각 실습형태에 대해 예비교사들로부터의 환류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실습만족도, 운영방식의 적절성과 효과 등에 대해 느끼는 정도가 실습별로 각기 달랐으며, 각 실습 형태별로 개선해야 할 점들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참관실습, 농어촌/도서벽지학교 참관실습, 학습지도실습, 실무실습, 수업실습 중 예비교사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실습은 수업실습이었으며, 이들이 인식하는 지도교사를 통한 배움의 기회와 미래 교사로서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4학년 1학기라는 수업실습 시기는 4학년 2학기에 있는 임용시험준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예비교사들의 집중된 활동을 끌어내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시기로의 이동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또 실무실습과 학습지도실습은 실습만족도, 교사들을 통한 배움의 기회, 실습을 통한 미래 교사로서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 등 실습의 주요 결과적 측면에 있어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는 개선을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 노력이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습지도실습의 경우 지도교사의 지도활동과 예비교사의 실습활동이 모든 실습학교에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와 함께 이 실습이 대학 강의와 병행되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예비교사들이 체력적 부담감과 시간적 촉박감에 쫓기지 않도록 실습학교 배정이나 대학 강의 시간 배정 등에 있어 보다 세심한 계획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실습은 학교 행정 업무를 익히기 위한 실습이 강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예비교사들의 비판이 많았으며, 이를 고려할 때 실습내용을 실무 위주로 전환하여 실제 해봄으로써 배우도록 하는 말 그대로 '실습'이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교사를 길러내는 데 있어 교육실습이 학교현장

적용 능력과 실천능력 함양이라는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실습을 이행하는 예비교사들이 그 목적과 실습을 통한 학습경험의 가치에 대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교육실습을 계획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예비교사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들의 의사 반응을 통한 개선의 노력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실습에 대해 이를 직접 이행한 예비교사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분석해 보는 것은 현재의 실습이 실제로 재학생들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지며, 보다 효과적 운영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관점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초등교육실습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런 맥락에서의 논문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각 실습 형태별 교육실습의 운영 실태와 그에 따른 개선의 제안은 교육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실습체계와 운영과정을 점검하고 보완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예비교사들이 바라보는 초등 교육실습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한 보다 일반화된 지식 구축을 위해서는 이 연구가 수행된 교육대학 외에 다른 초등교사양성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K. Y. Yoon, S. Y. Bae & B. Y. Cho. (1997). *Research on field experiences for preschool teachers*. Seoul: Changjisa.
- [2] D. Schön.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 think in action*. Basic Books.
- [3] E. J. Kim. (2010). A study on practical knowledge: The implication on teacher education and problem.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7(4), 27-46.
- [4] S. H. Cho. (2008). Educational values of teaching practicum as a part of teacher preparation cours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6(2), 317-342.
- [5] J. M. Goo. (2013). *Restructuring types of field experiences for preservice teachers at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wangju: GNUE.
- [6] L. Darling-Hammond. (2006). Constructing 21st-century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57(3), 300-314.
- [7] J. J. Kim, I. A. Kim & Y. T. Choi. (2001).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udent teaching practice for prospective

- teachers at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training. *Journal of Student Guidance*, 27, 79-113.
- [8] Y. M. Park, G. T. Kim, S. Y. Lee, K. M. Park & M. Y. Song. (2003). *Research on how to improve teaching practicum*. Seoul: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 [9] Y. H. Hwang. (2007). Implementing strategies to improve student teaching: Based on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0(1), 301-333.
- [10] S. H. Jo. (2008). Educational values of teaching practicum as a part of teacher preparation course.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6(2), 317-342.
- [11] H. H. Chung. (2014).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tudent teacher and students in pre-service internship course.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0(1), 5-39.
- [12] S. Y. Woo. (2017). Study on the pre-service teachers' emotional geographies during the teaching practicum.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3(5), 251-272.
- [13] H. W. Lee. (2014). Exploring the value of teaching practicum program from a transformational learning perspective. *Teacher Education Research*, 53(4), 706-722.
- [14] H. Y. Chung. (2004). Student teachers' expectations toward, evaluation of, and their changes of perceptions through student teaching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1(2), 209-230.
- [15] H. K. Kim & N. R. Lee. (2014). Exploring pre-service science teachers' professional identity focusing student teaching.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0(2), 171-201.
- [16] B. C. Kim. (2005). A study on the meaning of student teaching of student-teachers in the secondary school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3(4), 49-76.
- [17] K. J. Lee & M. G. Choi. (2016). Study conducted using qualitative research on teaching practice experiences of pre-service teache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1), 305-333.
- [18] H. K. Shin. (2015). The influence of student-teaching experiences on pre-service music teacher efficac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12), 111-135.
- [19] M. R. Eom & J. Y. Eom. (2009). A survey on change of competency for pre-service teachers before and after teaching practicum.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6(3), 491-508.
- [20] W. S. Lee. (2016). Study on the process of student teaching in secondary schools: Application of mixed method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8(2), 225-255.
- [21] M. J. Chung & J. Y. Chung. (2012). An analysis of the teaching practice effects on the competencies of pre-service teacher.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9(4), 63-83.
- [22] H. Y. Chung. (2008). A study on preservice teachers' change of educational beliefs through student teaching experiences.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1(2), 235-257.
- [23] J. M. Goo. (2013). *Restructuring types of field experiences for preservice teachers at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wangju: GNUE.
- [24] Y. H. Hwang. (2007). Implementing strategies to improve student teaching: Based on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0(1), 301-333.
- [25] M. J. Chung & J. Y. Chung. (2012). An analysis of the teaching practice effects on the competencies of pre-service teacher.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9(4), 63-83.
- [26] J. M. Goo. (2013). *Restructuring types of field experiences for preservice teachers at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wangju: GNUE.

김 영 주(Kim, Youngjoo)

[정회원]



- 1999년 8월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수업지도(교육학 석사)
- 2004년 8월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교육과정(철학박사)
- 2004년 8월 ~ 2010년 8월 : 미국 Oakland 대학교 교육대학 교수
- 2011년 3월 ~ 현재 :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교문화
- E-Mail : ykim@gnue.ac.kr

## 부록 1. 교육실습에 관한 설문지

학과: \_\_\_\_\_ 학년: \_\_\_\_\_  
 성별: \_\_\_\_\_ 나이: \_\_\_\_\_

이 설문지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실습에 대한 예비교사 여러분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응답자 본인의 실습 경험에 기초하여 의견을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5번까지: ①부터 ⑤번 항목 각각에 대해 아래 보기에서 골라 답하기

보기: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 여러분 자신의 실습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를 괄호 ( ) 안에 쓰시오.

- ① ( ) 참관실습 경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② ( ) 농어촌/도서벽지학교실습 경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③ ( ) 학습지도실습 경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④ ( ) 실무실습 경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⑤ ( ) 수업실습 경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2. 실습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적절성에 관한 다음 각각의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하시오.

- ① ( ) 참관실습이 이루어진 1학년 2학기는 이 실습의 운영 시기로 적절하였다.
- ② ( ) 농어촌/도서벽지학교실습이 이루어진 2학년 2학기는 이 실습의 운영시기로 적절하였다.
- ③ ( ) 학습지도실습이 이루어진 3학년 1학기 또는 2학기는 이 실습의 운영시기로 적절하였다.
- ④ ( ) 실무실습이 이루어진 3학년 2학기는 이 실습의 운영 시기로 적절하였다.
- ⑤ ( ) 수업실습이 이루어진 4학년 1학기는 이 실습의 운영 시기로 적절하였다.

3. 실습 기간의 적절성에 관한 다음 각각의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하시오.

- ① ( ) 1주간 진행된 참관실습의 운영기간은 적절하였다.
- ② ( ) 1주간 진행된 농어촌/도서벽지학교실습의 운영기간은 적절하였다.
- ③ ( ) 15주 동안 총 120시간 진행된 학습지도실습의 운영기간은 적절하였다.
- ④ ( ) 1주간 진행된 실무실습의 운영기간은 적절하였다.
- ⑤ ( ) 5주간 진행된 수업실습의 운영기간은 적절하였다.

4. 실습 지도교사로부터의 배움의 기회에 관한 다음 각각의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하시오.

- ① ( ) 참관실습 동안 실습 교사로부터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았다.
- ② ( ) 농어촌/도서벽지학교 실습 동안 실습 교사로부터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았다.
- ③ ( ) 학습지도실습 동안 실습 교사로부터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았다.
- ④ ( ) 실무실습 동안 실습 교사로부터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았다.
- ⑤ ( ) 수업실습 동안 실습 교사로부터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았다.

5. 실습을 통한 미래 교사로서의 성장 정도에 관한 다음 각각의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하시오.

- ① ( ) 참관실습은 내가 효과적 미래교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② ( ) 농어촌/도서벽지학교 실습은 내가 효과적 미래교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③ ( ) 학습지도실습은 내가 효과적 미래교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④ ( ) 실무실습은 내가 효과적 미래교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⑤ ( ) 수업실습은 내가 효과적 미래교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6. 각각의 교육실습에서 가장 유익했던 점은 무엇인가?

- 가. 참관실습:  
 나. 농어촌/도서벽지학교 실습:  
 다. 학습지도실습:  
 라. 실무실습:  
 마. 수업실습:

7. 각각의 교육실습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 가. 참관실습:  
 나. 농어촌/도서벽지학교 실습:  
 다. 학습지도실습:  
 라. 실무실습:  
 마. 수업실습:

8. 각각의 교육실습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쓰시오.

- 가. 참관실습:  
 나. 농어촌/도서벽지학교 실습:  
 다. 학습지도실습:  
 라. 실무실습:  
 마. 수업실습: